

• CEO메세지 •

아웃소싱, 왜 중요한가

전원하/KRG 대표

사람들은 많은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보에 대한 갈증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반면에 정보의 가치는 계속 소멸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하게 되면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나기란 더욱 힘들어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제 남은 과제는 정보의 수집이 아니라 정보의 가공과 관리의 문제로 귀결된다.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지난 수 년간 기업들은 지식과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각종 데이터 수집에 여념이 없었다. 이를 통해 수십 아니 수백 테라바이트를 축적한 기업도 생겨났지만, 다들 이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이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90년대 후반 열병처럼 번진 지식관리(KMS), 전사적자원관리(ERP), 데이터웨어하우징(DW), 데이터마이닝(DM) 등의 구축 붐을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기업 관리 솔루션으로 인해 기업은 또 다른 관리

문제를 안게 됐다. '관리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라는 자기 모순(Inconsistency)에 빠져든 것이다. 숨가쁘게 전개된 IT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업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통제력을 잃어갔던 게 문제였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웃소싱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웃소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태도는 원론적이고 소극적이다. 전체 IT예산 대비 아웃소싱 예산은 10% 미만이며, 자연히 국내 IT아웃소싱 시장도 2000년 이후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절대 다수의 기업들이 아웃소싱에 대해 대체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한국적 특수성인 계열 아웃소싱 업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짐으로써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고도화, 멀티 플랫폼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통합, IT와 접목된 경영전략 수립 등 정보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첨단 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의 역할은 증대될 것이다. 정서적인 마인드로 아웃소싱을 바라본다면, 글로벌 경쟁력은 먼 얘기가 될 것이다.

아웃소싱 서비스의 다양화와 경쟁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그리고 기업들의 선택과 집중의 패러다임을 이상이 아닌 현실에 적용시킬 때 기업과 벤더 모두가 win-win할 수 있다. 더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것이다.

• 주요뉴스 •

과기부, 클러스터 115곳 선정

과학기술부(장관 채영복)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는 올해 기업연구클러스터사업에 회원 가입을 신청한 147개 연구소를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10개 분야, 115개 연구소를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클러스터는 계측기기(기계부문) 연구클러스터 20개업체, 계측기기(전기·전자·통신부문) 연구클러스터 13개 업체, 공기정정 연구클러스터 11개 업체, 분말야금 연구클러스터 11개 업체, 소형모터 연구클러스터 9개 업체, 열·표면처리 연구클러스터 15개 업체 등이다.

기업연구클러스터 회원사로 선정된 업체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의한 기술개발자금 투자·융자 지원', '전문연구요원 지정기관 배정 추천 시 우선순위 부여' 기타 '연구성과 실용화'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공동사업 추진 주체의 역할도 주어진다.

IT중소·벤처에 700억 융자

정보통신부는 IT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기술담보만으로 총 700억원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IT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촉진기금중 700억원을 별도의 담보 없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 대출형식으로 기술개발 과제당 최고 10억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금리는 3.4분기의 경우 4.93%(대기업은 5.43%)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융자신청은 지난달 26일부터 받고 있으며,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에서 전산으로 접수한 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및 기술신용보증기금(www.kibo.c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전국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02-789-9200